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최인선, 주은지*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 Medi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s

Insun Choi, Eunjee Joo*
Department of youth culture & counseling,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2021년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총 310부를 분석에 사용 되었고, 자료는 SPSS 22.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가족건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정(+)적 상관관계, 성인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가족건강성의 긍정적 측면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긍정적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주어 대학생이 이에 인지적으로 반응하여 정서를 조절하여,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 회피)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하여 원만한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성인애착을 주로 독립변인으로 살펴본 것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에게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상담 장면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위한 의사소통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s.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were surveyed using 310 questionnaires from May 20 to 27, 202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and AMOS 23.0 statistic program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as follows. The family streng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dult attachment. Also,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family strength and adult attachment. The positive aspects of family strength influenced the positive thought and the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hus, university students can cognitively react and regulate their emotions. As for the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it is proved that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others is possible by constructively regulating negative emo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family strength of university students was recognized. Also, suggestions were made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communication style for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counseling setting.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 Family Strength, Adult Attachment,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University Students, Media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jee Joo(Hoseo Univ.)

email: joeej@hoseo.edu

Received October 5,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October 28,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이 지속되면 정서적으로도 힘들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계획을 재수정하면 문제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1]. 이러한 능력은 가정환경으로부터 형성되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준다. 인간은 사회 환경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성장하고 삶의 기초가 되는 가치, 신념,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우고 익힌다. 가정환경은 가족 구성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인의 정서에 도움이 되며, 행복과 성공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이외에도 가정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가정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원의 행동, 신념,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가족건강성이다. 가족건강성은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2].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3]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4]를 통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며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심리와 정서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Erikson의 발달과정에서 친밀감 형성이 발달과업인 시기[5]로 또래 및 이성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 등을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하는 대상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또한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아동과 같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성인도 아닌 중간단계이자 과도기적 시기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다양한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한다. 이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롭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안정애착이다. 불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낮으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또한 부족하다[6].

애착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이며, 양육자와의 경험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성인기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7]. 애착의 초기 연구는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인 부모애착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 애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성인애착 척도 개발을 기점으로 성인애착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성인애착은 생애초기 형성된 정서적 유대가 성인기에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애착유형이 변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9]. 애착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 버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의미하며, 애착회피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의미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 같이 타인에게 의존적이거나, 거부, 회피 등으로 인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성인애착의 두 차원(애착불안, 애착회피)의 특성에 맞게 도움을 주어 성인초기에 친밀감 형성에 안정감을 느끼고 일생 동안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갖게 해야 한다[10].

가족건강성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선행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을 지닌 사람은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가족적응성이 현저히 낮으며[11],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자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관련성이 높았다[12]. Kobak과 Sceery(1988)는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 반응이 다른 것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다름을 지적하였다[13].

또한 성인애착은 정서조절과 관련이 높다. Cooper, Shaver와 Collins(1998)의 연구에서 애착관계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 애착유형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14]. 이와 같이 가족건강성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유대감, 응집력이 높아져 대인관계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 능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조성하여 정서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과 주의에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애착유형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5,16]에서 불안정애착 유형을 지닌 사람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과장하거나 불안정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표현하지 못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이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17,18]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울음, 소리치기 등의 행동적 정서조절 보다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외에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문제점을 줄이고, 사회성이 높아졌다[19]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통해 대학생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 및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주로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여 두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20-22]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성인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대인관계 문제에서 각각 다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2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각각 다르게 매개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매개로 가족건강성이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고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의 성인애착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경로를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담 장면에서 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유형에 따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조망확대,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건강성의 중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성 발달을 위한 능동적 행동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1960년대 Otto(1962)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구성요소,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점, 원만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24]. 가족건강성은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변화되면서 가족구성원 간의 긍정적 자기정체감 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잠재능력을 찾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25]. 이외에도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태도 및 신념,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주어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가족건강성은 타인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 및 사고를 조절하게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26]. 유영주 등(2013)은 가족건강성을 가족 간의 행복과 가족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 의사소통 향상, 지역사회와의 연대감과 연결되므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27]. 이와 같이 가족 건강성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2.2 성인애착

애착은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의미[7]하며, 자신의 성격, 사회적능력, 정서, 행동, 대처능력,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고 전생애에 걸쳐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 즉, 성인애착은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애착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성인애착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의 세 가지로 분류[28]하였고, Collins와 Read(1990)는 친밀, 의존, 불안 등의 차원으로 구분[29]하였으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30]. 그리고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19].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중 어느 차원이 더 높은지에 따라 대학생이 지각한 대인관계 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31]. 또한 성인애착은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애착불안이 높으면 위협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애착 대상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으며, 애착회피가 높으면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를 유지하며 인지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거절과 거부를 회피하려는 특징이 있다[33]. 안정애착은 불안정애착 보다 건설적 정서 전략 사용으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34]. 이와 같이 성인애착과 정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개인의 정서상태가 다른 것은 각각의 정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정서가 어떠한지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Gross(1998)는 정서조절이라고 하였다[18]. 감정을 조절하면서 인지적 차원을 알 수 있고 정서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을 인지정서조절이라고 하며[17], 크게 적응적 그리고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19].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조망 확대,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그리고 부적응적 전략으로는 파괴화, 타인비난, 자기비난, 반추가 있다.

선행연구[35,36]에서 인지정서조절은 사회불안, 우울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정서조절은 성인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7].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인지적 측면에서 정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하다[38].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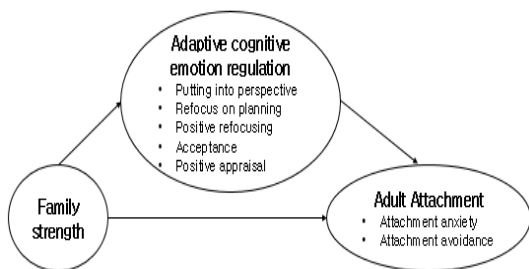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대학생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인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성인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하여 3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약 일주일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수가 10미만인 지역을 제외한 65부를 제외하여 총 31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학년 24.5%(n=76), 2학년 25.5%(n=79), 3학년 25.2%(n=78), 4학년 24.8%(n=77)였다. 성별은 남성이 49.7%(n=154), 여성이 50.3%(n=156)였다. 대학교의 소재지는 서울이 33.9%(n=1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19.0%(n=59), 충청도 9.0%(n=28), 부산 7.4%(n=23), 경상도 7.1%(n=22), 전라도 6.5%(n=20), 대구 5.2%(n=16), 대전 4.8%(n=15), 강원도 3.9%(n=12), 광주 3.2%(n=10) 순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39]. 본 척도는 네 개의 하위요인, 34문항(가족원유대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문제해결수행능력 6문항, 가치체계공유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가족원유대 .944, 의사소통 .880, 문제해결수행능력 .847, 가치체계공유 .910, 가족건강성 전체는 .973으로 나타났다.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17]는 적응적 그리고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문항을 사용하였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다섯 개의 하위요인(조망확대, 계획다시생각하기, 긍정적초점변경, 수용, 긍정적재평가) 각 5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조망확대 .708, 계획다시생각하기 .785, 긍정적 초점변경 .783, 수용 .677, 긍정적 재평가 .810,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7로 나타났다.

친밀관계경험검사는 Brennan 외(1998)[9]가 개발하고, Fraley 외(2000)[40]가 개정한 것을 김성현 (2004)[41]이 번안한 도구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각 1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925, .891,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8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23.0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 지수는 $\chi^2=149.881(p=.000, df=41)$, RMR=.035, GFI=.915, AGFI=.863, IFI=.952, TLI=.935, CFI=.952, RMSEA=.093으로 나타나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1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에서 모든 요인부하량(λ)이 .595에서 .970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가족건강성,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성인애착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7 이상과 .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Family strength	→ Commitment	.970	FIX	-	.978	.919
	→ Communication	.950	.025	40.478***		
	→ Ability to solve problems	.941	.025	38.385***		
	→ Sharing values and goals	.862	.034	26.804***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Putting into perspective	.748	FIX	-	.911	.674
	→ Refocus on planning	.660	.075	10.699***		
	→ Positive refocusing	.595	.087	9.652***		
	→ Acceptance	.724	.074	11.692***		
Adult attachment	→ Positive reappraisal	.765	.091	12.276***	.946	.736
	→ Attachment anxiety	.676	FIX	-		
	→ Attachment avoidance	.857	.769	1.661***		

*** $p < .001$

4.2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따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Table 2). 한편 상관계수가 .90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의 경우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왜도 및 첨도가 ±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821**	1									
3	.814**	.808**	1								
4	.831**	.823**	.815**	1							
5	.245**	.246**	.239**	.167**	1						
6	.334**	.351**	.339**	.227**	.398**	1					
7	.314**	.330**	.340**	.314**	.444**	.364**	1				

8	.258 ^{***}	.251 ^{***}	.268 ^{***}	.159 ^{***}	.624 ^{***}	.501 ^{***}	.367 ^{***}	1
9	.280 ^{***}	.335 ^{***}	.314 ^{***}	.244 ^{***}	.579 ^{***}	.561 ^{***}	.507 ^{***}	.491 ^{***}
10	-.146 ^{***}	-.161 ^{***}	-.114 ^{***}	-.064	.090	-.096	-.063	-.078
11	-.040	-.101	-.019	-.129 [*]	-.145 [*]	-.171 ^{**}	-.044	-.224 [*]
M	3.65	3.60	3.71	3.36	3.38	3.75	3.35	3.58
SD	.754	.772	.735	.769	.690	.627	.731	.615
Skewness	-.625	-.548	-.826	-.345	-.397	-.242	-.181	-.447
Kurtosis	1.093	.682	1.498	.273	.779	.352	.245	1.329

***p<.01
 Commitment=1: Communication=2: Ability to solve problems=3: Sharing values and goals=4: Putting into perspective=5: Refocus on planning=6: Positive refocusing=7: Acceptance=8: Positive reappraisal=9: Attachment anxiety=10: Attachment avoidance=11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 $\chi^2=237.277(p=.000, df=29)$, RMR=.057, GFI=.884, AGFI=.735, IFI=.909, TLI=.825, CFI=.908, RMSEA=.095 등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3),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조망확대($\beta=.258, p<.001$), 계획다시생각하기($\beta=.353, p<.001$), 긍정적 초점변경($\beta=.347, p<.001$), 수용($\beta=.283, p<.001$), 긍정적 재평가($\beta=.333, p<.001$)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대학생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중 조망확대($\beta=-.181, p<.01$), 긍정적 재평가($\beta=-.158, p<.05$)는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다시생각하기($\beta=-.184, p<.01$), 수용($\beta=-.193, p<.01$), 긍정적 재평가($\beta=-.167, p<.05$)는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beta=-.129, p<.05$)과 애착회피($\beta=-.149, p<.05$)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Family strength	→ Putting into perspective	.258	.053	4.619 ^{***}	.000	
	→ Refocus on planning	.353	.047	6.510 ^{***}	.000	

Family strength	→ Positive refocusing	.347	.054	6.387 ^{***}	.000
	→ Acceptance	.283	.044	5.109 ^{***}	.000
Family strength	→ Positive reappraisal	.333	.054	6.086 ^{***}	.000
	→ Attachment anxiety	-.181	.092	2.747 ^{**}	.006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voidance	-.184	.057	2.699 ^{**}	.007
	→ Attachment anxiety	-.082	.104	-1.213	.225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nxiety	-.033	.081	-.531	.596
	→ Attachment avoidance	-.125	.115	1.789	.074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nxiety	-.158	.090	-2.321 [*]	.020
	→ Attachment avoidance	-.129	.084	-2.033 [*]	.042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nxiety	-.081	.051	1.219	.223
	→ Attachment avoidance	-.184	.057	2.699 ^{**}	.007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nxiety	-.005	.045	.084	.933
	→ Attachment avoidance	-.193	.064	2.752 ^{**}	.006
Family strength	→ Attachment anxiety	-.167	.050	-2.439 [*]	.015
	→ Attachment avoidance	-.149	.046	-2.319 [*]	.020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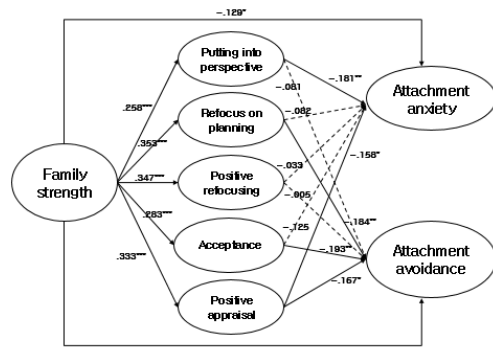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

다음 (Table 4)는 가설 4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직접효과($\beta=-.129, p<.05$)와 간접효과($\beta=.011, p<.05$), 총효과($\beta=-.118, p<.05$)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중 애착회피와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직접효과($\beta=-.149, p<.05$), 간접

효과($\beta=.087, p<.05$)가 유의하고 총효과($\beta=-.062,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에 대한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ttachment to place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Family strengt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xiety	.129*	.042	.011	.079	-.118*	.016
Family strengt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voidance	-.149*	.020	.087*	.017	-.062	.241

* $p<.0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매개변인에 대한 각각의 간접 효과는 분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인 조망확대, 계획다시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42]의 Sobel-test 분석 방법으로 각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애착불안의 관계에서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중 조망확대 ($Z=-2.354, p<.05$)와 긍정적 재평가($Z=-2.172, p<.05$)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다시생각하기 ($Z=-1.191, p>.05$)와 긍정적 초점변경($Z=-.529, p>.05$), 수용($Z=-1.685, p>.05$)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애착회피의 관계에서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중 계획다시생각하기 ($Z=-2.505, p<.05$), 수용($Z=-2.416, p<.05$), 긍정적 재평가($Z=-2.266, p<.05$)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조망확대($Z=-1.175, p>.05$), 긍정적 초점변경 ($Z=-.089, p>.05$)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중 조망확대, 계획다시생각하기, 수용, 긍정적 재평가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만,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중 긍정적 재평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Table 5. Sobel-test result of attachment to place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amily strength	Putting into perspective	Attachment anxiety	-2.354*	.018
	Refocus on planning		-1.191	.233
	Positive refocusing		-.529	.597
	Acceptance		-1.685	.092
	Positive reappraisal		-2.172*	.029
Family strength	Putting into perspective	Attachment avoidance	-1.175	.240
	Refocus on planning		-2.505*	.012
	Positive refocusing		-.089	.929
	Acceptance		-2.416*	.016
	Positive reappraisal		-2.266*	.023

* $p<.05$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10,12]와 가족건강성과 부모애착 사이에서 성인애착이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43]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가족건강성 수준이 낮으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 또한 낮게 된다[11]는 것으로 가족 간의 애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인지정서조절은 애착회피보다 애착불안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38]와는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성인애착의 애착회피와 감정표현불능관계에서 부적 관계가 있음[44]을 확인하였다. 인지정서조절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45]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일부 선행연구와는 일치[10,12,43]하거나 불일치[38]하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에 후속연구에서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성인애착에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애착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지적 사고가 낮기 때문에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하여 불안 수준을 낮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하여 애착회피를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애착 유형에 따른 인지적 조절 전략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이 지각된 반응에 집중하여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대학교 상담 장면에서 변인들에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 정서 갖기'나 '의사소통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 한다. 성인애착과 감정표현불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은 부분매개[4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능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은 애착불안과는 완전매개, 애착회피와는 부분매개 하였으며 성인애착 수준이 높으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덜 사용한다[45]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하위요인 간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애착불안의 관계에서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하위요인 중 조망확대와 긍정적 재평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은 대학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려는 인지적 사고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딪히는 사건의 심각성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며, 더 큰 사건에 비해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상대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적 경험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생은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 의사소통, 유대감을 통한 정서경험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여 애착불안을 낮게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하위요인 중 계획다시생각하기, 수용, 긍정적 재평가에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

다. 성인애착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재평가하고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이 지각한 부정적 심리 반응을 긍정적 전환이 되도록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38]와 일치한다. 애착회피 수준이 높으면 불안 조절을 위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하기보다는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한다는 연구[46,47]결과를 역 해석하면 애착회피 수준을 낮게 하는데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가족의 유대감 형성은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대학생 특성인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고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지 않는 것[48]에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대인관계, 긍정적 마인드, 자기지각의 변화에 필요한 변인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시사하는 바이다.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과 소속감이 형성된다. 그러나 대학생은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정한 애착부터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삶의 만족감과 질이 저하되기 쉽다. 이에 건강한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대학생은 사회성 발달과 교사, 친구 등 타인으로부터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49]와 같은 맥락이다. 즉 긍정적 정서조절은 가족관계 및 적응성 등 사회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이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가족 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필요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이 연구대상수가 10미만인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전국 4년제 대학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의 연구대상 수를 균일하게 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 관계에서 인지정서조절 중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인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두 가지 차원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성인애착 수준을 낮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의 상담 장면 또는 교수 면담 시 대학생의 가족환경 요인을 살펴보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에서 각각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예를 들어 '효율적 의사소통', '긍정적 생각 스위치 켜기', '감정 툴하기', '수용하는 나'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W. S. Gim, J. W. Park, "Path analysis on family influences affecting the career aspir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26, No.1, pp.203-229, 2013.
- [2] G. S. Yoo,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 Focusing on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9, No.2, pp.25-42, 2004.
- [3] H. J. Lee, S. H. Jung, W. Y. Choi, "The influence of family strength on college students' flow",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8, No.1, pp.81-97, 2017.
- [4] Y. 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9, No.2, pp.119-151, 2004.
- [5] E.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DOI: <https://doi.org/10.1002/bs.3830140209>
- [6] K. A. Brennan, P. R. Shaver,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1, No.3, pp.267-283, 1995.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95213008>
- [7]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Basic Books, 1969.
- [8] C. Hazan, 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511-524,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9] K. A. Brennan, C. L. Clark, P. R. Shave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A. Simpson & W.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pp.46-76, 1998.
- [10] J. U. Kim, J. H. Lee, "The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 adul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marriage valu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13, pp.677-700, 2019.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9.19.13.677>
- [11] M. J. Goldstein, "Family relations as risk factors for the onset and course schizophrenia",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ing of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08-423, 1990.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752872.024>
- [12] H. J.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conflict: Medi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deregulation*,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2014.
- [13] P. R. Kobak, A. Sceery,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Vol.59, No.1, pp.135-146, 1988.
DOI: <https://doi.org/10.2307/1130395>
- [14] M. L. Cooper, P. R. Shaver, N. L. Collins,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No.5, pp.1380-1397, 199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4.5.1380>
- [15] G. S. Lee, N. W. Chung, "The difference of affect regulation Style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79-793, 2003.
- [16] Y. S. Yang,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nd emotion regulation*, Ph. 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000.
- [17] N. Garnefski, V. Kraaij, P. Spinhoven,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0, No.8, pp.1311-1326, 2001.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 [18] J. J. Gross,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2, No.3, pp.271-299, 1998.
DOI: <https://doi.org/10.1037%2F1089-2680.2.3.271>
- [19] N. Garnefski, V. Kraaij,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0, No.8, pp.1659-1669, 2006.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5.12.009>

- [20] E. M. Shin, J. W. Lee, H. S. Le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4, pp.177-183, 2021.
DOI: <http://doi.org/10.14400/JDC.2021.19.4.177>
- [21] J. U. Kim, M. J.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hop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2, pp.93-122, 2017.
DOI: <http://doi.org/10.35151/kyci.2017.25.2.005>
- [22] S. R. Yun, M. H. Bak, "The effect of the adult attachment and mindfulnes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6, No.4, pp.27-37, 2019.
DOI: <http://doi.org/10.20496/cpew.2019.6.4.27>
- [23] D. R. Kwon, N. Shin,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 Mediating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3, pp.113-125, 2018.
- [24] H. A. Otto,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Vol.24, No.1, pp.77-80, 1962.
DOI: <https://doi.org/10.2307/348232>
- [25] N. Stinnett, K. H. Sauer,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Vol.11, No.4, pp.3-11, 1977.
- [26] E. M. Shin, J. W. Lee, H. S. Le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4, pp.177-183,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4.177>
- [27] Y. J. Yoo, I. S. Lee, S. K. Kim, H. J.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 No.14, pp.113-129,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56>
- [28] C. Hazan, P.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211-524,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29] N. L. Collins,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 644-66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8.4.644>
- [30] K. Bartholomew,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226-214,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1.2.226>
- [31] H. S. Lee, H. K. Lee,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burnout in novice counselors: The mediation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433-1449,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433>
- [32] J. Y. Lee, Y. K. Ha,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optimism and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5, No.2, pp. 73-87, 2013.
- [33] M. Mikulincer, I. Orbach,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5, pp.917-925,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8.5.917>
- [34] P. R. Shaver, M. Mikulincer,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4, No.2, pp. 133-161, 2002.
DOI: <https://doi.org/10.1080/14616730210154171>
- [35] S. J. Kim, Y.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valuation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1919-1938, 2013.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46>
- [36] Y. H. Lee, S. H. Jeong, W. Y. Choi,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depression and anxiet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9, No.2, pp.125-147, 2018.
- [37] E. S. Jeon, H. Y. H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forgive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3, pp. 1159-1179, 2012.
DOI: <http://doi.org/10.15703/kjc.13.3.201206.1159>
- [38] J. Y. Jeong,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Adult Attachment Styl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 [39] E. J. Eo, Y. J. Yoo,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3, No.1, pp.145-156, 1995.
- [40] R. C. Fraley, N. G. Waller,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2, pp.350-365,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8.2.350>
- [41] S.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68-71, 2004.

- [4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3] S. J. Lee, I.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of origin's streng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hildren's problem drinking",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 23, No.1, pp.273-289, 2015.
DOI: <http://doi.org/10.21479/kaft.2015.23.1.273>
- [44] M. A. Besharat, V. Shahidi,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alexithymia",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Vol.10, No.2, pp.352-362, 2014.
DOI: <https://doi.org/10.5964/ejop.v10i2.671>
- [45] S. J. Kang, Y. H. Choi,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The intermediat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8, No.3, pp.53-68, 2011.
- [46] N. K. Kim, N. M.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2, pp.217-238, 2016.
DOI: <http://doi.org/10.15703/kjc.17.2.201604.217>
- [47] H. H. Kyung, H. Y. Hong, "The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on adolescents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5, pp.291-319, 2011.
- [48] H. Song,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elf-disclo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ce attachment and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6, pp.3753-3767, 2013.
DOI: <http://doi.org/10.15703/kjc.14.6.201312.3753>
- [49] J. U. Kim, M. J.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hop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2, pp.93-122, 2017.

최 인 선(Insun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문학석사)
- 2016년 2월 :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 전공(철학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애착, 학습 및 진로

주 은 지(Eunjee Joo)

[정회원]



- 1997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문학사)
- 2005년 6월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인간발달과 가족과학과(철학석사·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애착